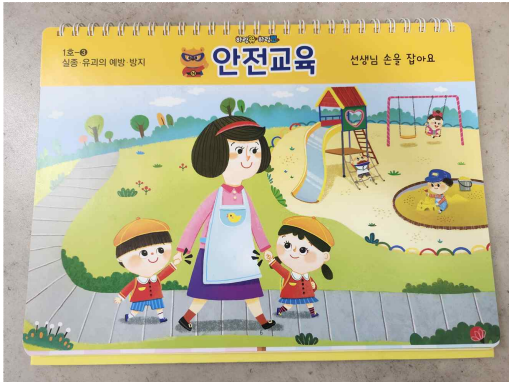


안 전 교 육 일 지

담당	원장
임단비	

활동명	(실종유괴)찾았다! 엄마 손	영역	실종유괴
교사의 기대	실외에서 부모(교사)를 잃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진다. 외출을 나갈 때에는 부모(교사)의 손을 잡고 다녀야 함을 안다.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활동자료	우는 아이 그림이 담긴 안전 교수자료		
활동일시	2026년 3월 5일		
활동방법	① 혼자 울고 있는 아이의 그림을 제공하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교사의 의도적인 상호작용 개입 없이 환경으로만 제공) ② 영아가 그림에 관심을 보이면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친구가 왜 혼자 울고 있을까? - ○○는 언제 속상했어? - 그림 속 친구는 엄마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렸대. ③ 밖에 나가서 부모(보호자)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다. - 바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니? - 바깥에 나가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 선생님 또는 부모님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 선생님과 부모님 손을 꼭 잡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④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손을 놓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요리'는 엄마와 함께 어디를 갔니? - 백화점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 사람도 많고 물건들도 많구나! 백화점에서 엄마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 예쁜 꽃을 보다가 요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니? ⑤ 외출하거나 바깥놀이를 나가서 어른의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 외출하거나 바깥놀이를 나가서 왜 어른의 손을 잡아야 할까? (길에는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부모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손을 꼭 잡아야 한다) ⑥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본다. - 여기 누구의 손이 있니? - 아줌마, 아저씨, 오빠, 언니, 엄마! -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 - 엄마 손을 왜 잡아야 할까? 아줌마(그 외 다른 사람)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⑦ 부모(보호자)의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회상하며 찬트를 따라 불러본다.		
활동사진	 		
평가	그림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과 그림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눈 후 영상 매체를 보며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혼자 돌아다니게 되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또한 밖에 나가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이야기 나누며 역할극도 해보았고 이러한 안전교육을 통해 길을 잃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담당	원장
임단비	

안 전 교 육 일 지

활동명	(감염/약물)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영역	감염/약물
교사의 기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지 않는다.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활동자료	손 인형, 안전 교수자료		
활동일시	2026년 3월 12일		
활동방법	① 손 인형(또는 배가 아픈 모습의 막대 인형)을 제공하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교사의 의도적인 상호작용 개입 없이 환경으로만 제공) ② 영아가 그림에 관심을 보이면, 손 인형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 친구의 표정이 슬퍼 보이네. - 배가 많이 아픈가 봐. - ○○가 친구의 배가 아프지 않도록 '호' 해줄까? - 친구는 왜 배가 아팠을까? ③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본다. - 먹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먹을 수 없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화장실에 있는 비누, 세제, 가글은 절대 먹으면 안 돼. - 색이 예쁘다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④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진다. -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게 된대. 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 또는 보호자(부모)께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 음식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 맛있게 생긴 것 중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 -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허락하는 것만 먹어야 해. - 잊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도록 하자. ⑥ '아무거나 먹지 않기' 내용을 회상하며 챗트를 따라 불러본다.		
활동사진	 		
평가	물약을 발견한 영아들이 관심을 보였고 마실 것 중에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교구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영아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보았고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		

안 전 교 육 일 지

담당	원장
임단비	

활동명	(재난)불이야! 불이야!	영역	재난
교사의 기대	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불이 났을 때 안전한 대피 방법을 안다.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활동자료	화재 관련 그림 자료		
활동일시	2026년 3월 19일		
활동방법	① 놀이 시 화재 발생 경보음을 들려주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교사의 의도적인 상호작용 개입 없이 환경으로만 제공) ② 화재 발생 경보음에 영아가 반응하면 교사는 언어적 반응을 해준다. - ○○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네? - 응, 선생님도 깜짝 놀랐네? - 아~ 그런 소리가 났어? - ○○는 119 소방차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봤구나. ③ 화재 발생 경보음에 대해 알고 소방 대피 방법을 안다. - (화재 발생 경보음을 들려주며) 무슨 소리일까? -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니? - 이 소리는 화재 발생 경보음이라고 해. - 불이 났을 때 이 소리로 사람들에게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알려주는 신호야. - 선생님과 함께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④ 불이 났을 때 큰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 불이 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해. ⑤ 불이 났을 때 안전한 장소를 알아보고, 숨지 말고 교사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가야 함을 이야기한다. - 불이 났을 때 무섭다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 선생님이 ○○를 찾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어. - 불이 났을 땀 선생님을 따라 안전한 밖으로 나가야 해. ⑥ 화재 시 대처 방법을 회상하며 교사가 불러주는 찬트를 함께 불러본다.		
활동사진	 		
평가	사이렌 경보음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과 사이렌이 울리는 이유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실의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보고 불이 났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직접 대피 훈련을 진행해보기도 하였다. 상황극을 통해 대피 훈련을 하며 다시 한번 재난의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담당	원장
임단비	

안 전 교 육 일 지

활동명	(교통)바르게 건너요	영역	교통
교사의 기대	신호등 초록불과 빨간불의 의미를 안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어른의 손을 잡아야 함을 안다.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기를 생활 속에서도 경험한다.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활동자료	안전 교수자료		
활동일시	2026년 3월 19일		
활동방법	① 슬라이드 그림 자료(바르게 건너요)를 보여주며, 횡단보도를 건넌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 (횡단보도를 가리키며) 이건 어떤 그림이니? - 그래, 횡단보도야. 횡단보도를 건너본 적 있니? -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곳이야. -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은 무엇일까? -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는 방법을 알아보자. ② 슬라이드 그림 자료(바르게 건너요)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 맞아, 어른과 함께 가야 해. - (슬라이드 자료를 보며) ○○야, 그림 속 신호등이 무슨 색이니? 그래, 초록색이야. -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길을 건너는 거야. -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길을 건널 수 없어. - 그리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도 바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단다. - 오른쪽, 왼쪽을 살펴보고 차가 안 올 때,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건자. ③ 영아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흉내를 내보며, 어른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연습을 해 본다. -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건너볼까? - 횡단보도가 보이면 우선 멈추자. -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선생님의 손을 잡고 건너자. - 신호등이 초록색이네! 오른쪽 왼쪽을 살펴보자! - 자, 차가 오지 않으니 왼손 들고 선생님 손잡고 걸어보자. - ○○이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바르게 건넌구나. ④ 일상생활에서도 길을 건널 때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 어린이집 앞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할 거야? - 주말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누구의 손을 잡을 거야?		
활동사진	 		
평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림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횡단보도를 건넌 경험을 이야기해보았다. 빨간 불과 초록불이 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접 신호등을 만들어 건너는 역할극을 해보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안 전 교 육 일 지

담당	원장
임단비	

활동명	(생활)계단에서 조심조심 걸어요	영역	생활
교사의 기대	계단에서 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안전하게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활동자료	계단에서 장난치는 모습 그림, 발바닥 도안, 발바닥 활동지		
활동일시	2026년 3월 31일		
활동방법	① 계단에서 장난치는 모습 그림을 제공한 후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교사의 의도적인 개입 없이 환경으로만 제공) [활동 1: 계단에서 장난치지 않아요] ② 안전교육 [계단에서는 조심조심]을 보며 계단을 바르게 이용하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이야기 나눈다. - 어? 이 친구는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고 있지? - 계단에서 뛰고, 장난치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 [활동 2: 계단을 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 ③ 계단을 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계단에서 뛰면서 밀거나 장난치면 어떻게 될까? -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계단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올라가야 해. - 계단을 내려올 때도 손잡이를 잡고 발자국 모양을 따라 천천히 내려와야 해. - 약속할 수 있겠니? [활동 3: 계단을 바르게 이용해요] ④ 실제 계단을 이용하며 발자국 모양을 따라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계단에서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만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란다. - 어느 쪽으로 올라가면 좋을까? - 내려오는 쪽은 어디가 좋을까? - ○○가 계단 손잡이를 꼭 잡고 내려가는구나. - ○○가 한 발씩 차례차례 내려가는구나.		
활동사진	 		
평가	계단을 바르게 이용하는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계단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계단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아이와 계단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아이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어떤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계단을 걸을 때에는 천천히 난간을 잡고 걸어야 함을 알아보았다. 이야기를 나누며 영아들이 계단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견학이나 산책을 갈 때에 조심히 계단을 걸어보라고 약속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